수덕사 유·무형 문화유산 디지털로 구현

동국대 불교학술원 · 수덕사
8월 28일 업무협약 체결
역사 · 인물 · 가람 · 신행 주제
한국불교문화포털서 제공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8월 28일 동국대 충무로관 불교학술원장실에서 열린 '디지털 사지(寺誌)-덕숭산 수덕사(德崇山 修德寺)'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가 보유한 유·무형 문화유산이 디지털로 구현된다. 현재까지 연구·보고된 수덕사 관련 자료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작, 제공해 한국불교 문화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8월 28일 동국대 충무로관 불교학술원장실에서 '디지털 사지(寺誌)-덕숭산 수덕사(德崇山 修德寺)'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수덕사 행사기획단장), 수덕사 재무국장 현중 스님, 김종욱 K-Buddhism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김종욱 동국대 교수, 이하 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한국불교문화포털(buddhaland.dongguk.edu)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지' 제작·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사지'는 전통적으로 각 사찰에서 간직한 역사와 유·무형 문화유산, 기록유산 등을 취합해 책자 형태로 간행하던 '사지'를 디지털로 통합 구현한 것이다. 지리정보를 기반한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문화유산 전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사업단은 연간 1~2개 전통사찰을 선정해 해당 사찰의 '디지털 사지'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2022년 '디지털 사지-지리산 화엄사'를 구축해 공개했고, 2023년 '디지털 사지-팔공산 은해사'를 제작해 탑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는 '디지털 사지-덕숭산 수덕사' 제작·탑재를 목표로 한다. 수덕사가 소장한 자료를 총괄해 '역사' '인물' '가람' '신행'을 주제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제해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각 세부 정보에는 해설을 추가하고, 관련 이미지·영상·문서·웹사이트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종합수행도량으로서 덕숭총림의 특수성을 살피고, 근현대기 수덕사를 거쳐간 문화계 인물들의 행적과 현재 수덕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전시시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에서 수덕사가 가지는 위상을 조망한다. 또한 중요 내용은 쉬운 한글 문장으로 작성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사지'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게다가 향후 새롭게 생산될 자료는 수덕사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도록 성장형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이번 '디지털 사지-덕숭산 수덕사' 제작은 대중이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사찰의 근현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첨단 방식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수덕사의 역사와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문화적 역량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정리하고 대중에게 소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한국불교문화포털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욱 사업단장도 "'디지털 사지-덕숭산 수덕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근역성보관, 선미술관, 만공기념관, 한국고건축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시설을 갖춘 가람과 역사적 인물 소개에 중점을 둬 덕숭총림 수덕사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 참가단체 모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최
노래 · 악기 · 춤 등 부문 나눠
9월 2~14일, 이메일로 접수
10팀에 총 700만원 지원금

불교문화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축제의 장에서 예술적 끼와 열정을 발산할 불교문화 동아리를 모집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문화대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불교문화대전-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 참가단체 모집 공고에 나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신행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불교문화 예술인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비전문 불교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 우수 동아리에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래, 악기 연주, 춤, 연희공연으로 부문을 나눠 진행되며, 사찰, 종립학교, 대학 내 불교학생회, 불교단체에서 추천받은 비전문 불교문화 동아리 또는 소모임이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연령은 무관하다. 다만 합창단 등 전문단체의 지원은 제외한다.

참가 신청은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추천서, 동아리 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maze@buddhism.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는 9월 21일에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유선 인터뷰를 거쳐 본선 진출팀 10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팀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선은 10월 19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 단체에는 상장과 동아리 활동 지원금 총 7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불교문화대전 추진위는 "올해 처음 전국의 사찰, 종립학교, 불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불교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정착·운영해 불교계 신행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고, 문화 포교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불교문화대전 추진위원회(02-929-2183)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 개인전 '지금 여기'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유담 카페서



설치미술가로 활동하는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사진〉이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유담 카페에서 14번째 개인전 '지금 여기(即時現今)'를 개최한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참된 자신의 본성을 일깨워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본래 면목을 되찾고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무봉탑' 등 설치 작품과 다구 그림에 진언을 새겨 몸과 마음의 평안을 염원하는 그림 총 36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 개막 당일 오후 3시에는 '선명상 현실 수행법'을 주제로 선원 수좌 스님(현웅 스님, 지범 스님, 지상 스님, 상운 스님)들과 함께하는 법담회가 열린다. 특히 관객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카페에서 전시를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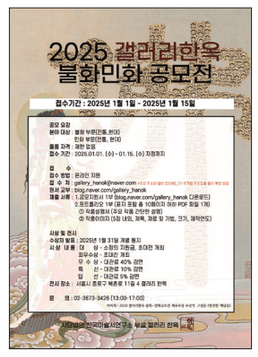
선진 스님은 "현대사회는 놀라운 경제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정신적 공허감, 소외감, 분노, 우울, 불안 등 여러 정신적 장애를 증가시킨다"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원한 지복(至福)과 행복은 생각의 감옥으로 벗어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지금 이 순간, 현존에 거(居)할 때 가상의 분리된 자아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얻는다"며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얼룩지게 하는 마음의 세계에서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매 순간 바른 통찰로 에고와 무의식의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갤러리 한옥, 제4회 불화·민화 공모전 개최

신진 작가 발굴 · 양성 위해
25년 1월 1~15일까지 접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이 제4회 불화·민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불교미술과 민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신진 불화 및 민화 작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모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품개요서, 작품이미지가 담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이메일(gallery_hano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기소개서에는 연락처, 주요 학력, 주요 전시 경력을 소개한다. 작품개요서에는 작가노트와 주요 작품 설명을 담으면 된다. 작품 이미지는 5점 내외로 작가명, 제목, 재료 및 기법, 크기, 제작연도를 기입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표지 포함 총 10페이지 이하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하고, 10MB를 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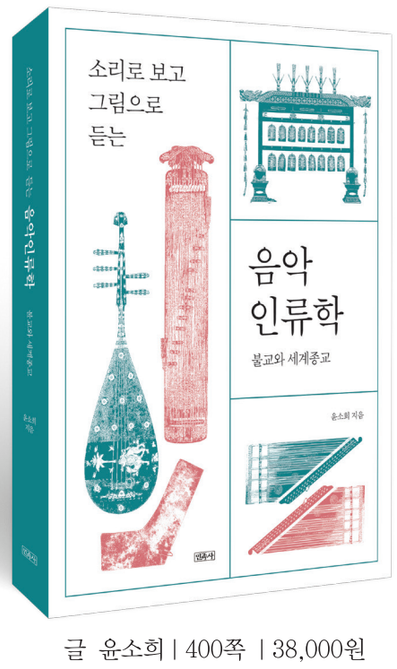
수상자에게는 갤러리 한옥 전시 기회가 부여된다. 전시는 수상자 발표 후 갤러리 내부 일정에 맞춰 수상 1년 이내에 진행한다. 대상 수상자는 초대전시 기회와 전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에게는 초대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과 특선, 입선 수상자에게는 전시대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갤러리 한옥은 "갤러리 한옥은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로, 아름답고 아담한 공간을 자랑하는 한편 귀위있는 작가와 교수들의 전시회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불교미술과 민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신진 불화 및 민화 작가들을 육성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는 1월 31일에 개별로 통지한다. 문의 사항은 갤러리 한옥(02-3673-3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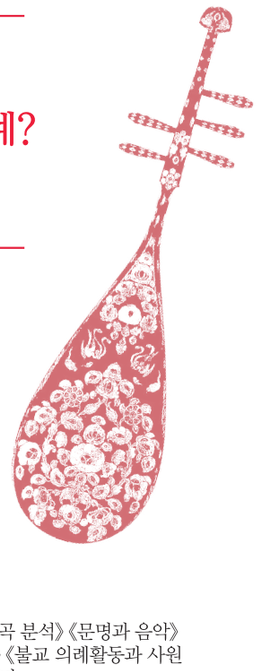
김내영 기자

K-팝에는 불교음악이 있다?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코리안 떼창의 진원지는 사찰 악가무일까?
한국의 예수재와 이집트의 사후 심판은 어떤 관계?
염주로 꿰어보는 수능 금지곡과 수피 춤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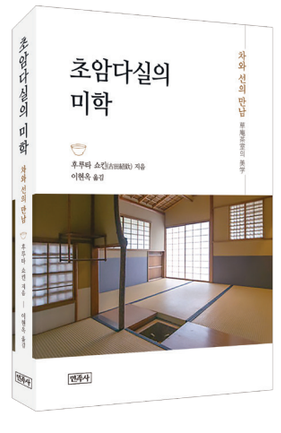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윤소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우교수로 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는《국악 창작곡 분석》《문명과 음악》《세계 불교음악 순례》《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한·중 불교의례와 범패》 등이 있다. 연구논문《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범어범패의 율적 특징과 의례 기능》《불교 의례활동과 사원경제》《삼국유사의 음악과 악기》《티벳 참 의례와 몸짓 만다라》《보로부두르 주악도와 한국의 불교 악가무》《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중·일 율조 비교》 외 다수가 있다.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고졸한 다실에서 깨달음을 얻다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모르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